

## 피카소에서 스피버그까지

### What do you think of Pablo Ruizy Picasso and Steven Spielberg

이재림 / (주)지담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Jae-Rim

I. 작년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한 학생이 사무실로 찾아와 몇 개월 후면 입대를 해야하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익하겠는지 조언을 구했다. 강의를 들을 때부터 총명해 보였던 터라 가 볼만한 곳들을 이곳저곳 알려주고 자료도 챙겨주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몇몇 일들, 예컨대 테마를 정해 전시회를 관람한다든지, 우수한 영화들을 장르별로 감상해본다든지 하는, 아무튼 꼭 건축관련해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런 것들이 건축공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내게 부연하여 설명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그 동안 막연히 해보고는 싶었으나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탓에 막상 말은 했지만 뒷수습하기가 그리 간단치 않았다. 피카소에서 스피버그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학생이 내게 피카소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건축인들이라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다행이다 싶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뒤이어 스피버그 감독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대한 찬사도 덧붙였다. 더불어 이들의 우수함은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이미지창조에 있으며, 우리도 창의적 환경을 경험하여 건축의 창조력을 이어가야 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말을 맺었다. 처음에는 좀 두서간 없었지만 말을 하다보니 자아도취 되어 제법 그럴듯하게 끝맺음을 한 셈이었다. 이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질문하기가 어려웠는지 학생은 여러 번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뒀다.

피카소에서 스피버그까지...

모두 좋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니 그 학생에게 해주어야했던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다.

II. 시립미술관은 건축물의 가치만큼이나 내게 감동을 주는 전시회가 많이 기획된 곳이다. 특히 지난 3월에 열린 밀레의 작품전은 오랜만에 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 전시회로 기억되고 있다.

나는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를 건축가로서 뿐만아니라 미술가로서 좋아한다. 레오나르도다빈치에게 열등감을 가졌고 평생을 우둔하게 살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 고뇌가 오히려 친근감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빈센트 반 고흐도 매우 좋아하고 있다. 그의 화풍은 거칠고 다분히 공격적이다. 그래도 나는 그의 힘있는 터치나 자극적

인 색상을 보며 감동을 받는다. 그 안에는 자신의 귀를 자르고 자살을 결행할 만큼 갈등을 겪었을 그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 프랑스와 밀레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밀레는 근대를 살았으나 신화에 몰입되지 않았고 정치나 혁명의 세력도 거부하였으며, 보여지는 세상 그대로에서 주제를 찾아 일관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혹자는 그를 사실주의자라 말하며, 그의 지나친 리얼리티를 예로 들어 이발소 그림작가로 폄하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미술전문가가 아니니 그 견해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사랑했던 그는 신에게서 인간으로 정치이념에서 휴머니즘으로 주제를 혁신시킨 조용한 혁명가였다. 그리고 그는 전통주의와 인상주의 사이에 다리를 놓은 화가로 재평가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밀레전을 보며 밀레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통하여 선을 사용하는 기법을 익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고흐는 밀레를 흠모하여 그의 그림을 수 십 편 모작하였음도 알게 되었다. 지난번 암스텔담에 있는 고흐미술관에 들렀을 때 전시면에 밀레의 이름이 자주 쓰여있는 것을 보았다. 불어에 문외한이라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혀 다른 개성으로 작품세계를 가졌던 그들에게는 음지에서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시대를 살지는 않았으나 인간의 본성에 접근하고자 애썼던 그들은 자신을 닮았던 또 다른 그들을 알아보았던 것 같다.

현대예술의 상징적 존재는 아마도 파블로 피카소일 것이다 그의 예술적 위업은 대단한 것이며, 그의 그림은 천재의 번뜩이는 기치와 예지로 가득하다. 그러기에 나 또한 그를 존경한다. 다만 한 가지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을 사랑한 절절함이나 휴머니즘까지를 내가 읽어낼 수 있다면 나는 그를 자연인 피카소로서 좋아하게 될 것이다.

미켈란젤로, 밀레, 고흐처럼...

Ⅲ. 신지식층의 대표적 인물로 스피버그가 자주 거론되곤 한다.

그는 영상에 기술력을 접목하여 영화를 문화산업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며, 인디애나존스 시리즈에서 "E.T" 그리고 "Catch Me If You Can"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소재들을 영화화하여 전 세계에 보급시킨 아메리칸 드림의 일등공신이다. 그의 영화는 재미있고 기발하며 뛰어난 기치가 있다. 「창의력」, 「상상력」은 이제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나 또한 한때 그의 매니아였

다. 그러나 나이가 든 탓일까? 감동적이었던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는 영화를 꼽아보니 스피버그의 작품은 단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 소개되었던 "애정의 조건 [Terms Of Endearment]"이라는 영화가 있다. 제임스 브룩스 감독에 의해 제작되어 그 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고, 주연을 맡았던 셸리 매클레인이나 대배우 잭 니콜슨의 조연연기가 일품인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미망인으로 살아온 엄마와 엄마로부터 탈출하고자 철없는 결혼을 한 외동딸과의 30년에 걸친 삶의 이야기이다. 마음에 차지 않는 사위, 엄마의 뜻을 저버리고 선택했던 남편의 외도, 그 사이에서 증폭되는 갈등 그리고 화해 이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진부한 스토리이지만, 이 영화는 눈물을 자극하는 장면도 없고,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화면은 빠른 템포로 진행되며 엄마보다 앞선 딸의 임종도, 자식들을 대면하는 마지막 순간도 전혀 드라마틱 하지 않다. 그저 삶의 한 모습이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객관적으로 그리고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스피버그식 기발함도 부수는 장면도 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다. 닥터지바고나 아라비아의 로렌스처럼 장대한 스케일도 아니고 줄거리도 단순하다. 이런 영화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중한 감동으로 남아있다.

일상에서 특별한 무엇을 찾아낸다는 것은 분명 창의적 사고를 필요하다. 그러나 평범함 속에서 진실을 발견해내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더 깊이 있는 사고가 요구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 아카데미가 스피버그에게 유독 인색한 것인지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Ⅳ.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가 천재성이나 창의성에만 있는지, 혹은 독창적이고 기발한 것에만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건축의 본질은 무엇일까?

건축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감동이 없는 독특함이란 평범의 수준을 넘을 수 없고, 진솔된 인간의 삶만큼 타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조금은 쉽게 해답에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